

청년의 시선으로 외교·안보·통일을 그린다

- 「외교·안보부처 2030 청년 정책 토론회」 개최 -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의 미래를 설계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외교·안보부처 2030 청년 정책 토론회」가 9월 2일 외교부 1층 모과마루에서 열렸으며, 세 부처의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시각을 나누며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 토론회’를 목표로 준비됐고, 참여한 청년들은 부처별로만 활동하던 때보다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는 외교부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의 지혜와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토론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혼합 팀별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청년들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외교·안보·통일 현안’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오찬 후에는 김세중 동대문구 의원이 ‘청년의 정책설계 참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청년세대가 정책 형성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년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는 외교부 청년 플랫폼 혁신화 방안, 군사시설 무단 촬영 방지 방안, 평화·통일 분야 인턴십 제도화를 통한 청년 전문인력 장기육성 등 실질적이고 참신한 논의가 다수 제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심사하였으며, 청년세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행사에 함께한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청년 세대가 정책의 수용자를 넘어 직접 설계자로 참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외교·통일·국방부가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을 함께 초청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한 것은 부처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행사를 기획한 세 개 부처의 청년보좌역(이시라 외교부 보좌역, 안국현 통일부 보좌역, 황민식 국방부 보좌역)은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모여 외교·통일·국방 현안을 함께 고민하니 서로의 생각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며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청년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통일·국방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한층 더 혁신적이고 포용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별첨 : 행사 사진

담당 부서 <공 동>	외교부 조정기획관실 청년·지방민생외교팀	책임자	외무서기관	나세주 (02-2100-8485)
		담당자	청년보좌역	이시라 (02-2100-8358)
담당 부서 <공 동>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기혁 (02-2100-5690)
		담당자	청년보좌역	안국현 (02-2100-5984)
담당 부서 <공 동>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책임자	국 장	김경욱 (02-748-6501)
		담당자	과 장	김후열 (02-748-6510)
		담당자	청년보좌역	황민식 (02-748-6560)